

중·한 언어 문화적 차이 실태와 해결대책

김종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때 중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 문화적 차이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결 대책을 찾아보려 한다. 아래에서 1. 중한 문화적 차이 실태 2. 중한 언어 차이 실태, 3. 중한 언어 문화적 차이 해결 대책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중한 문화적 차이 실태

문화는 하나의 복합체로서 그 속에는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격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습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습관 등이 망라된다. 문화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문화는 침투성(Infiltration)을 갖고 있다.

인류 문화는 비록 형식이 부동하다 하더라도 모든 문화 형식은 오랜

* 중국 복단대학.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문화의 발전은 늘 두 가지 측면, 즉 통시적인 측면과 공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문화의 통시적인 발전 과정에서는 보통 공시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공시적인 요소란 문화의 침투성과 상호 역할을 가리킨다.

문화 침투의 매개물은 주로 언어 기호를 통하여 표현되며 언어에 반영되는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 1) 똑같은 물체를 가리키는 기호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플라스틱’과 ‘塑料’가 가리키는 물체는 똑같기에 이러한 전환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2) 기능이나 화용론에서 동일성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영어의 ‘hello!’거나 중국어의 ‘你好!’, 또는 한국어의 ‘안녕하세요!’ 등은 기능상에서나 화용론적으로 대체되지만 의미 실체의 대응은 아니다. 3) 언어 문자의 형식적인 수단 즉 독음을 통하여 외래 문화를 본토 문화에 뿌리박게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한국의 한자어가 그러하다.

둘째, 문화는 수용성(Compatibility)을 갖고 있다.

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가 서로 수용되면서 병존하며 발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의 전수를 위하여 전제 조건을 마련해 준다. 인류의 문화사나 현대 생활은 부동한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수많은 우수한 문학, 문화 경전과 예술 진품들이 인류 공동의 재부가 되고 있다. 문화가 수용성을 갖고 있기에 부동한 언어 사이의 접촉도 내용이나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호한 생태환경을 갖추게 되어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중국어 가운데 많은 단어와 문장구조는 외래어와 연관이 있고 또 한국어 단어 가운데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오늘 중국어와 외국어, 중국어와 한국어가 서로 간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유래라 할 수 있겠다.

셋째, 문화는 민족성(Nationality)을 갖고 있다. 어떠한 문화나 모두 본 민족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본 민족의 낙인이 적혀 있지 않은 문화란 있을 수 없다. 언어 속에 반영된 민족 문화의 특색은, 문화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가 나타내는 사물의 동일성, 문법 구조에 있어서의 의미 정보의 대응성, 그리고 문화 정보 내용의 동일성과 이해가능성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넷째, 문화는 교란성(Interference)을 갖고 있다. 다른 민족의 문화는 본 민족의 문화에 방해 역할을 하여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한국어의 '연출(演出)'은 중국어에서는 '導演'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중국어의 '演出'은 한국어에서 '공연'이라는 뜻으로 쓰이기에 자칫 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선동(煽動)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는 부정적인 면에서만 쓰이나 한국어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쓰인다. 때문에 한국어의 한자어를 완전히 중국어의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되며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도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철학자 보플이 말한 제3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보플은 세계를 세 개로 구분하였는데 세계1은 순수한 자연 세계로서의 객관 세계를 가리키고 세계2는 인간의 사유 세계로서의 주관 세계를 가리키며 세계3은 세계1과 세계2가 공동으로 창조한 문화의 세계를 가리킨다.

중국과 한국은 그 지정학적 인접성과 함께 사회,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 관련으로 볼 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처해 있다. 그러나 각자 부동한 지리적 환경과 부동한 역사, 문화를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중국과 한국이 처해 있는 세계1과 세계2에는 부동한 점이 많다. 중국은 땅이 크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인구가 많으나 한국은 땅이 중국보다는 작고 산이 많으며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인구도 적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인 환경이 다르다. 즉 순수한 객관 세계로서의 세계1에서 부동

한 점이 많다. 인간의 사유 세계로서의 세계2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몽배원(蒙培元) 선생은 <중국철학의 주체 사유를 논함>이라는 글에서 중국인의 사유 주체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인과 한국인을 서로 비교하여 본다면 중국인은 사유의 주체성은 강하고 한국인은 사유의 객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과 한국인이 생활하고 있는 순수한 자연으로서의 객관 세계가 다르기에 인지와 실천의 결과에도 차이가 있게 된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문화는 각자가 다 비교적 뚜렷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다.

사유 방식에 있어서 중국인은 주체성이 강하고 한국인은 객체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 점은 중국과 한국의 전통적인 원림 문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국은 땅이 넓기에 어떤 곳에서는 산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자기의 주체의식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도시나 그 부근에 산과 호수를 만들어 놓고 각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나 화초를 옮겨다 심고, 또 건축물을 짓고 중국의 특색이 있는 비석이나 서예를 가침하여 그것들을 즐긴다. 예를 든다면 중국 베이징의 ‘의화원(頤和園)’이나 지금 상하이에 있는 ‘열대 삼림(熱帶雨林)’ 또는 ‘바다 속의 세계(海底世界)’ 등이 다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땅이 중국보다 작고 도처에 산과 호수가 많기에 한국인들은 주로 자연의 산이나 호수를 그대로 이용하며 거기다 정자 같은 것을 지어 놓고 자연 그대로의 멋을 즐기고 있다. 또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중국인들은 “賣魚了!(賣=팔다, 魚=고기, 고기를 팝니다)” 혹은 “賣水果了!(賣=팔다, 水果=사과, 사과를 팝니다)”라고 소리치는데 한국인들은 “고기를 사세요!” 혹은 “사과를 사세요!”라고 소리친다. 중국어에서 ‘팔다’의 주체는 ‘나’ 자신이기에 내가 고기나 사과를 팔고 있으니 살 사람은 사가라는 뜻으로 표현되나 한국인들은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 주체는 자기가 아닌 손님이 되는 것이므로 남들에게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사유의 주체성과 객체성의 차이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학생들이 교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떠날 때 교수님께 올리는 인사말을 보기로 하자. 중국인 학생들이 보통 올리는 인사말은 아래와 같다.

“老師，我占用了您的寶貴時間，真是對不起”

“교수님의 귀중한 시간을 점용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老師=선생님, 我=나, 占用=점용하다, 了=동작이나 변화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어조사, 您=단수 제2인칭을 높여 부르는 말, 的=의, 寶貴=귀중하다, 時間=시간, 真是=참말로, 對不起=미안하다)

즉 “제가 교수님의 귀중한 시간을 점용하여 교수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그러나 한국인 학생들은 보통 아래와 같이 인사한다.

“교수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중국인은 주체 중심, 즉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남의 시간을 점용했다고 표현하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상대 중심으로 교수님이 시간을 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황급히 구조를 청하여 부르짖을 때 중국인은 “救命啊!” 혹은 “救人啊!”라고 소리치는데, 자기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救命啊!”라고 소리치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소리칠 때는 “救人啊!”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황급히 구조를 청하여 부르짖을 때 자기와 남을 구분 없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사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를 집단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에는 서방 문화와 동방 문화가 서로 잘 융합되는 곳으로서 지금 국제화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서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런지 자아중심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지고 있다. 상하이의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청소를 할 때 학생마다 자기가 쓸 걸레를 갖추어 가지고 자기가 앉아 있는 책상과 그 주변을 분담하여 맡고 자기가 맡은 구역만 제각기 청소를 하고 있다. 또 집단적으로 행사에 나갔다가 학교로 돌아올 때에도 함께 올 친구들을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두 학생이 택시를 탔을 경우에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즉시로 택시비를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 가정교사를 청했을 때도 강의가 끝난 그 자리에서 강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드린다. 숙사에서든 연구생들은 자기활동공간을 천으로 둘러막고 그 속에서 제각기 공부하면서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함께 먹은 후 분담하여 계산한다. 이런 예들은 한국인의 집단 중심의 문화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 한국인의 문화는 가족 중심의 문화 또는 가장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데 상하이 사람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가정에서는 주로 남자가 중심이 되어 남자는 직장에 다니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한다. 그러나 상하이 사람들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에 남자가 장을 보고 쇼핑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등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상하이 친구가 집에 손님을 청해 놓으면 그 친구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가서 요리를 준비하고 친구의 아내는 오히려 객실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주방 일은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상하이 사람들은 결혼한 후 남편은 월급을 다 아내에게 바치고 용돈을 얼마간 타 쓴다. 부부가 쇼핑을 가면 무거운 물건은 남편이 들고 다닌다. 어린애도 남편이 업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에 사는

조선족 남자가 퇴근한 후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남편 직장에 있는 상하이 여성들이 그 남자를 불러다 놓고 상하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중공격'을 퍼붓는 일도 가끔 있었다고 한다. 상하이 사람들과 "집에서 누구의 말에 결정권이 있는가?" 물어보면 보통 웃으면서 "큰일은 남자에게 결정권이 있지만 결혼해서 지금까지 큰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마 한국에서는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친구를 집에만다 청해 놓고 남편이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거나 음식 장만을 하고, 아내는 객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나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음식 문화나 기타 방면에서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단대학 한국어과는 주로 상하이시와 그 주변의 절강성과 강소성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어과로 오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중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났으며 또 1인 자녀로서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에서 '황제'로 받들려왔기에 한국의 가장 중심이나 어른 중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났다. 때문에 한국어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며 부딪치게 되는 중한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는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같거나 비슷한 문화적 형식(또는 형태)은 같거나 비슷한 정보 통로가 있는 법이다. 반대로 상이한 문화적 형식은 문화적인 차이나 문화적 대립에 의한 간격을 생기게 하여 정보의 통로를 막아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문화는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우리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때 한국 문화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

2. 중한 언어 차이 실태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는 발음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기초 단계에서 한국어 발음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중국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생들은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어에 성조를 첨가하는 경향이 많이 생긴다. 한국어의 미세한 모음 차이에 대하여 구분하기 힘들어 한다. 한국어의 ‘ㄱ’나 ‘ㅇ’의 구별 또는 ‘ㅡ’나 ‘ㅣ’의 구별 등이 그러하다. 중국어는 종성으로 끝나는 자음은 ‘n’와 ‘ng’ 두 개인데 비하여 한국어에는 ‘ㄹ’ ‘ㅁ’ ‘ㅂ’ ‘ㅅ’ ‘ㄱ’ ‘ㄷ’ ‘ㅇ’ 등이 있어 종성으로 끝나는 발음을 하기 어려워한다. 중국어는 연음 현상이 적은데 비하여 한국어는 연음 현상이 풍부하다. 중국어에서 ‘戀愛’는 ‘lian ai’로 발음하지 ‘liannai’로는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연음 현상이 아주 많다. 그리고 ‘ㄴ’, ‘ㄹ’이 덧나는 경우, 예를 들면 가랑잎(karangnip), 담요(tamnyo)같은 단어나 구개음화가 되는 단어들을 잘 발음하지 못한다.

둘째, 어휘적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단어의 의미는 객관 사물이거나 현상이 인간의 의식에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단어의 의미, 개괄 범위와 용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심리와 의식, 논리적 사유, 객관 사물에 대한 분류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휘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이한 언어 문화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착용동사의 사용을 보면 중국어는 ‘穿’(옷을 입거나 신, 양말 따위를 신다)과 ‘戴’(머리, 얼굴, 가슴, 팔, 손 따위에 착용하다)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비하여 한국어는 여러 가지 부동한 착용동사를 쓰고 있다. 예를 든다면

穿衣

옷을 입다

穿鞋

신을 신다

戴表	시계를 차다	戴戒指	가락지를 끼다
戴金項鏈	금목걸이를 걸다	戴圍巾	수건을 두르다
戴花	꽃을 달다	戴眼鏡	안경을 쓰다
戴帽子	모자를 쓰다	戴口罩	마스크를 쓰다
...	...		

중국어에서 ‘戴’라는 동사로 개괄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은 한국어에서 는 구체화하여 여러 개 동사로 구분하여 ‘쓰다, 끼다, 차다, 걸다, 두르다, 달다, ...’ 등으로 표현한다.

명사의 경우 역시 이렇하다. 예를 든다면

腦袋	머리/ 대가리/ 대갈통/ 머리뺨
臉	얼굴/ 면상/ 낮바닥/ 낮바대기/ 낮판대기/ 낮짝/ 상통/ 상판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보통말과 존경, 경멸의 뜻 빛깔을 가진 단어들 이 동의어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의 뜻 빛깔을 가진 단어 와 대응되는 단어들 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 사회·정치면에 있어서 중국과 다른 점이 있기에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은 어느 학교나 모두 ‘校長(교장)’이라 하는데 한국은 대학교에서는 총장이라 한다. 그리고 ‘임원 회의’라 하면 중국인 학생들이 ‘사무일꾼 회의’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중국어의 ‘主任(주임)’은 중국에서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좀 낮은 직급에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있는 가람들을 가리키는데 한국어의 ‘주임’은 중국어의 ‘主任(주임)’과 뜻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언어 문화적인 차이로 하여 중국인 학생들은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한다.

지시대체사의 경우 중국어는 ‘這’와 ‘那’ 두 개 계열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한국어는 ‘이/ 그/ 저’ 세 개 계열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중국인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중국어의 두 개 계열에 습관이 되어 왔기에 한국어의 ‘이/ 그/ 저’ 3계열 체계에 습관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보통 우리는 중국어의 ‘這’는 한국어의 ‘이’ 계열에 대응하고 ‘那’는 한국어의 ‘그/ 저’ 계열에 대응된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어의 ‘這’가 한국어의 ‘그/ 저’에 대응되고 중국어의 ‘那’가 한국어의 ‘이’ 계열에 대응되는 실례도 아주 많다.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많아진다. 이것도 사물을 지칭함에 있어서의 언어 문화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중화 양국에서 쓰이는 단위명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우리는 보통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면 중국에서는 ‘三千里 錦綉江山’이라 하는데 실제 중국의 ‘三千里’는 1500km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의 3천리는 1200km에 해당하지만 실제 제주도 까지 포함해서 1000km남짓한 개념이다. 이런 차이는 삼천리 강산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로 되지 않지만 중국의 양자강의 길이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만약 중국의 “揚子江全長達12760里”란 말을 한국어로 “양자강의 전체 길이는 12760리나 된다.”고 옮겨 놓는다면 틀린 표현이 된다. 한국의 1리는 대략 0.393km에 해당되지만 중국의 1리는 0.5km에 해당되므로 실제 양자강의 길이는 한국의 16234리에 해당되기에 그 차이가 3474리나 나게 된다. 한국의 ‘평’도 그러하다.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의 ‘평’을 중국의 평방(미터)으로 오해하기 쉽다. 따라서 한국인이 40평의 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중국의 40평방에 해당하는 방 한 칸짜리 주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의 한 평은 중국의 3.3평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지 환산하면 130평방에 달하는 큰 주택인 것이다. ‘근’도 한국에서는 고기는 600g, 과일 400g으로 하지만 중국에서는 보통 한 근이면 500g이기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성구나 속담 가운데서도 미세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중국어 성구 ‘亡羊補牢(양을 잃고 우리를 고치다)’를 보통 한국어 속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다’로 대응시켜 이해하지만 실제 사용에는 차이가 있다. 중국어의 ‘亡羊補牢’라는 성구를 중국인들은 이미 실패나 손실을 당한 뒤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차후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다’라는 속담을 한국인들은 이미 실패나 손실을 당한 뒤에 대책을 아무리 강구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는 보통 중국어에서 ‘初生牛犢不畏虎(방금 태어난 송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에 대응되지만 의미와 용법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한국의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1년 되는 강아지를 가리키지만 중국어의 ‘初生牛犢’는 방금 태어난 송아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의 ‘初生牛犢不畏虎’는 젊은 사람들이 패기 있게 용감하고 대담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방면에 쓰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青年人要發揚初生牛犢不畏虎的精神(젊은 사람들은 ‘初生牛犢不畏虎’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쓰면서 그런 정신을 제창하고 있는데 한국어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쓰이어 주제넘게 행동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속담이나 속언에 나타나는 이러한 언어 문화적 차이를 상세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사용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적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어의 격조사, 종결, 접속 등을 나타내는 각종 어미들이 그러하며 존대법 체계도 그러하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와 집단 속에서 생활하며 주위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다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사람들의 연령에서, 성별에서,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는 혈연 관계, 학연 관계, 지연 관

계와 등급에 있어서도 서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남을 대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게 되며 따라서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말과 행동에서 표현하게 되는데 한국 문화는 어른 중심의 문화로 윗사람에 대한 예절 관계가 말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만약 한국어를 배울 때 윗사람에 대한 정중성과 존경이 잘 표현된다면 상대방의 교양 정도와 친숙감을 느끼게 되는데 한국인은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말의 뜻과 함께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 즉 말의 논리적 내용과 함께 감정적 측면도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여도 감정적으로 합리적이지 못 할 때에는 비록 의사를 나누는 목적은 도달할 수 있어도 상대방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존칭 등이 문법상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請’이나 ‘您’과 같은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吃飯(吃=먹다/들다/잡수다, 飯=밥/진지)’이란 말을 누구에게나 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인 경우 자기 신분에 따라 또는 대상의 신분에 따라 그 용법이 달라진다. “진지 드세요” “밥 잡수세요” “밥 먹어라” “밥 처먹어” 등등으로 표현된다.

중국인 학생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언어 문화적인 차이이다.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민족문화 환경에서 자라 왔으며 어릴 적부터 말을 틀리게 하면 어른들이 바로 잡아 주면서 예모나 예절들을 가르쳐주기에 한국 문화에 습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인은 다르다. 때문에 중국인 학생들을 도와 이런 언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게 하려면 언어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한국의 예절이나 문화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1인칭 대명사 '나'의 겸칭 '저'의 사용에서도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중국인들의 사유에는 주체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중국어의 표현으로 자기의 부모들을 “我爺” “我媽”라고 하며 자기가 사는 나라를 “我國”,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我校”라고 한다. 그들은 그런 표현을 한국어로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 ‘저의 나라’ ‘저의 학교’라고 한다. 중국어의 대명사는 청자를 전부 포함하는 ‘咱們’과 청자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我們’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의 ‘우리’에는 이런 구별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학교’라고 하면 청자를 다 포함시키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남과 뚜렷하게 갈라놓으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때 한국인의 사유 습관으로 본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나라’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명사의 사용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의 부모들에게 대명사를 쓰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는 회사에 다닙니다. 일요일이면 그는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았습니다. ... 나는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호칭 뒤에 늘 대명사를 쓰고 있다. 예를 든다면

“爸爸，你去哪儿？” “아버지, (당신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老師，你吃什麼？” “선생님, (당신께서는) 무얼 드시렵니까?”

“你從哪裏來？” “(당신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한국어에서는 이때 보통 대명사를 쓰지 않고 생략하거나 꼭 써야 할 경우에는 “아버지” “선생님” 또는 “손님” 같은 것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생들은 부모님들에게도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식 사유에 의해 사고하고 그것을 다시 한국어 문장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생

겨나는 오류이다.

동사나 형용사, 특히 심리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사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든다면 “그가 무섭다”란 말을 한국인들은 무서워하는 사람은 ‘나’이고 무서워하는 대상은 ‘그’로, 즉 ‘나는 그가 무섭다’로 사유하고 이해하지만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의 ‘그’는 중국어의 단수 제3인칭 대명사 ‘他’이고, 한국어의 ‘가’는 주어를 나타내고, ‘무섭다’는 중국어의 ‘害怕(무섭다/무서워하다)’로 분석하기에 이 말을 중국어의 사유 방식에 의하여 사유하고 판단하여 ‘그가 무서워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의 ‘무섭다’는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중국어에 대응되는 ‘害怕(무섭다/무서워하다)’와 뜻 구조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이한 민족의 언어 문화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립다/좋다/싫다/밉다/반갑다/무섭다/슬프다/즐겁다/예쁘다/고맙다/...’ 등도 중국어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처럼 ‘그립다/그리워하다’와 같은 구별이 없이 하나의 단어 ‘想念’으로 ‘그립다/그리워하다’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인칭이나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등과 별로 큰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기에 한국어와는 많이 다르다. 한국어의 ‘슬프다’를 보기로 하자.

나는 아주 슬프다.	我很傷心/悲傷。
*너는 아주 슬프다.	你很傷心/悲傷。
*그는 아주 슬프다.	他很傷心/悲傷。

한국어의 ‘슬프다’는 주어의 인칭에 많은 제약이 있다. 평서문에서 주어는 화자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1인칭에 한정된다. 그러나 의문문에서는 또 “너는 슬프니?” “영철이는 슬프니?”로 될 수 있다. 그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고 질문할 때 청자인 ‘나’나 ‘영철이’가 “어

편 감정을 느낀다”고 대답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제3자인 그의 감정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 그는 슬펐다”는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중국어에서 한국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傷心/悲傷’에는 한국어와 같은 차별이 없으므로 주어의 제약 없이 1인칭이나 2인칭이나 3인칭에 두루 다 쓰일 수 있으며, 평서문이거나 의문문이거나 또는 시제와 관계없이 쓰일 수 있다.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중국어의 영향으로 하여 항상 한국어의 ‘슬프다’와 같은 심리 동사나 형용사를 중국어의 ‘傷心/悲傷’과 같은 단어 부류로 이해하고 중국어의 사유 습관대로 제약 없이 쓰기 때문에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많은 오류가 생긴다. 특히 그들이 아직 완전히 한국어로 사고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어서 머릿속에서 먼저 중국어로 사고한 후 중국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로 말을 옮겨놓기에 오류가 생긴다.

이런 심리 동사의 사용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인의 자아중심적 주체의식을 느낄 수 있다. 즉 중국어에서는 주로 화자의 느낌이거나 타인에 대한 주체적 느낌을 표현하는 반면에 한국어는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나는 슬펐다” “그는 슬퍼했다” 식으로 표현한다.

我很悲傷

你很悲傷

他很悲傷

내가 느끼거나 보기에 그렇다

때문에 이런 단어들의 사용법에서도 중국인과 한국인의 사유방식의 차이, 혹은 언어 문화적 차이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난점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또 중국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거나 또는 한국에서 연구되었지만 중국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그런 성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이다.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은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한국어가 배우기 힘들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제때에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3. 언어 문화적 차이 해결 대책

중국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1992년 중한 양국의 국교수립 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설치되고 학생 모집 인수도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광둥 외국어 대학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한국어는 영어와 일본어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부상했다고 한다. 중국의 남부지역에는 지금 한국어과가 개설된 대학이 두 개 있는데 모두 상해에 있다. 그리고 광둥외국어대학에서 지금 한국어과를 만들고 곧 학생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복단대학 한국어과는 1995년에 성립되었다. 명년부터는 해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모집하고 교사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어과에서 중국어와 전혀 다른 언어인 한국어의 발음부터 시작하여 한국어 어휘, 문법 등을 4년 동안 배운 후 한국어에 정통하여 중한 정치,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위하여 일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복단대학 한국어과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나타나는 언어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해결 대책을 고안해냈다.

첫째, 학생들이 방금 한국어과에 들어왔을 때 한국어 발음교육을 진행

하는 동시에 그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기에 중국어로 “한국 개황”이란 과목을 설치하여 매주 3시간씩 한 학기 정도 한국의 역사, 지리, 경제, 법률, 문화 등 한국에 관해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강의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초보적으로 대상국인 한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인 교수들을 초청하여 1년 동안씩 한국어 강의를 하도록 한다. 복단대학 한국어과는 1995년 학과가 성립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한국인 교수 한 명씩 한국어과로 초청하여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여러 대학교들로부터 교수들을 초청하였다. 한국인 교수들의 강의를 통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국인의 생활 양상과 예절 등을 배우고 있다. 한국에서 온 교수들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식사도 같이하며 중국어도 배우며 학생들의 훌륭한 선생이 되었다. 또 한국인 교수들은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결해 주었다. 한국어 사전이 필요하면 한국에서 몇 십 권씩 사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교과서에 녹음 테이프가 없으면 한국에서 구해오고 CD나 비디오 테이프도 학과에 들여놓고 그 외에도 직장을 찾을 때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주기에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평상시의 한국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하여 소개한다. 특히 문학 강의거나 시청각 강의와 결부시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복단대학 한국어과가 성립된 후 한국 대사관과 상해 총영사관을 통하여 많은 영상 자료를 기증 받았다. 이런 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범독 강의 교과서에 윗놀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중국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기에 강의 때 직접 옷놀이판과 옷을 만들어 갖고 가서 학생들이 놀아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생 자신들을 통하여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일학년 학생들에게 일대일로 상급 학년 학생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한국어 학습에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게 한다. 그리고 복단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소개하여 그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게 한다. 복단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은 600여명 달하는데 한국어과 학생들은 그들과 접촉하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다섯째, 한국어 언어 실습을 실행한다. 보통 2학년 마지막 학기(6월 말)에 학생들을 데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훈춘현 양수 지역으로 약 한달 동안 언어 실습을 가게 되는데 실습의 목적은 한국어를 2년 동안 배운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일상생활 환경과 그들의 풍속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어 사용 즉 그들이 입을 열게 하려는데 있다. 복단대학은 확실히 언어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 시간 외에는 학생들이 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지에 가게 되면 학생들이 거주하는 그 마을이 한국에서 집단적으로 이주해온 마을이고 한국어와 한국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내려온 마을이기에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아주 유리하다. 실습지에서 한 집에 학생 한 명씩 두어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김치, 된장국, 찰떡, 송편 등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속 활동에도 참가하면서 온돌방에서 잠을 자야하며 또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어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환경은 그들이 한민족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한국어로 사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실습을 할 때 학생들을 조직하여 백두산 유람도 하고 도문시에 가서 한민족의 전통음식인 냉면, 개장국 등도 맛보이고 중조 변계에 있는 도문강도 보여준다. 실습

지에서 돌아온 후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전에 한국어로 말하기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한 달 가량의 실습을 거친 후 대담하게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조건을 마련하여 한국어과 학생들이 직접 한국에 유학 가서 반 년 내지 일 년을 생활하면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접촉하게 하는 것이다. 복단대학에서 매년 모집하는 한국어과 학생수는 16명인데 최근 3년 사이는 평균 75%의 학생들이 각종 도경을 통하여 한국의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대학교에서 반 년 또는 일 년간 유학생생활을 했다. 한국 유학을 통하여 실제로 한국의 문화를 접촉하고 언어를 배우는 데서 학생들의 한국어 응용과 이해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었다.

이상의 대책들은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으며 훌륭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잘 배우게 하려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날 한국어 연구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사실 중국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 중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만큼 중국어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인의 특점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둘째,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한국인과 직접 생활하며 한민족의 생활 습관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한국어 회화 능력을 신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실습 경비에 있다. 복단대학의 경우 실습지로 가려면 기차로 38시간을 가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대폭 지지하여 60%의 비용을 부담하고 학과에서 한국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20%

의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들이 2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실습을 실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반 년이나 일 년 동안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유학은 성적순에 의하여 보내는 것이므로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은 전혀 기회가 없다.

이상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있어서 중국인 학생들에게 더욱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고 또 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빨리 더 잘 배우게 할 수 있다.

이상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중한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실태와 그 해결 대책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간단히 언급했는데,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있기 바란다.

참고 문헌

- 김중택(1992), “국어어휘론”, 탑 출판사.
崔奉春(1987), “漢朝語匯對比”, 延邊大學出版社.
崔奉春(1994), “朝鮮語与漢語關係研究”, 延邊大學出版社.
柳英綠(1999), “漢朝語法對比”, 延邊大學出版社.
이용해(2000), “중한번역교정”, 청도해양대학 출판사.